

'해남배추' 북미 수출 6배 확대...올해 1천t 선적

군, 남도김치 수출 확대 협약...배추·양념 패키지로 맛·품질 유지 명현관 군수 "안정적인 판로 확보...신규 개척 지원 등 확대할 것"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북미 수출길에 오른다. 해남군은 지난 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영암군, 회창물산(주), 동진무역, 지엔티웨이, 지중해양농조합, ㈜왕인식품 등 7개 기관·기업과 남도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배추를 생산하는 지중해양농조합과 김치양념을 생산하는 ㈜왕인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지엔티웨이, 동진무역, 북미지역 한인마켓 H마트 직영 유통사인 회창물산 등은 남도김치 세계화를 위해 명품 해남배추와 김치양념을 패키지로 수출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배추를 캐나다로 150t이 첫 수출을 시작했고 올해는 북미지역 최대 한인마켓 H마트 직영 유통사인 회창물산을 통해 1000t의 해남배추를 수출하기로 했다.

김치수출이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길수록 맛의 변화가 심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배추와 김치 양념을 분리해 수출함으로써 남도김치의 맛과 품질을 최대한 유지해 세계인들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한 명품 해남배추를 북미지역 최대 한인마켓인 H마트에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판로 개척과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을 확대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왼쪽 네번째) 전남지사와 명현관(오른쪽 두번째) 해남군수, 기업 관계자들이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명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월출산 산책로 치안 협약

영암경찰-4개 기관

영암경찰은 7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우송희 영암군수와 김대승 영암소방서장, 이재동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월출산국립공원 산책로 치안안전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지난 8월 서울 산림동 산책로 이상 동기범죄 사건 이후 월출산국립공원 산책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져서 지역공동체 치안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공인 범죄예방 정보 공유, 산책로 CCTV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CPTED) 조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활동 전개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중득 영암경찰서장은 "산책로에 행사·지역경관관을 배치해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하고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국화의 밤 향기도 진도아리랑을 타고

군, 국화전시회 야간 개장 15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집라인 등 즐길거리 확대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 주제의 국화전시회를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지난해보다 5배 이상 규모가 확대된데다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 장식으로 꾸민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국화 12만송이를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 등의 4개 테마로 조성한 올해 국화전시회에서는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집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며졌다.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에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 주제의 국화전시회야간 조명. <진도군 제공>

서는 아리랑식물원과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형 매장 등도 함께 감상하며 즐길 수 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

청년 창업지원 스마트팜 조성·공공산후조리원 등 탄력

영광군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투자계획에 대해 서면·현장·대면 평가를 거쳐 내년 배분기금을 결정했다.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S등급 144억원(5%·4개 지자체), A등급 112억원(15%·14개 지자체), B등급 80억원(30%·26개 지자체), C등급 64억원(50%·45개 지자체)씩 해당 지자체에 기금을 차등 배분했다.

영광군은 기초 기금으로 B등급 80억원을 확보했다.

정주여건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생활 인구 확대, 청년농

업인의 영농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9호점)에 선정돼 광역기금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사업비 66억원이 투입되는 '영광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다.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국 1위인 영광군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지속해서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활력 도시 영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형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 수산물, 부산수산물엑스포서 390만 달러 수출 협약

전북·해조류 가공품 등

완도군이 7일 '2023 부산 국제수산물엑스포'에 참가해 일본, 미국 등 6개국 바이어와 총 390만 달러 상당의 완도산 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은 이번 엑스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개 기업이 참가해 수산물 가공품 홍보관을 운영했다.

참가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완도산 수산물 제 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그 결과 완도해양어조합법인, 완도바다식품, 해성인터내셔널, 더폴문 등이 일본, 미국 등 6개 국가 기업과 10건(39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수출품목은 전복, 광어, 해조류 가공품 등이 다.

참가 업체들은 또 해조 국수와 전복 볶음밥, 광어 죽, 전복 차우더, 전복장, 암염 조미김 등 전북·해조류 가공품 시식 행사를 마련해 완도 수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한국전북수산물연합회는 지속 전북 무료 증정 이벤

트를 열기도 했다.

대만의 한 바이어는 "완도 지역에서 고품질의 수산물 제품을 개발해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기회가 된다면 완도를 방문해 새로운 수산물 제품을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는 아시아 3대 수산 종합 전시회로 국내외의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양곡창고, 화려한 레스토랑 됐다

'1004섬 남하부역' 개장...지역특산물 이용 피자·파스타 등

신안군이 비어있는 양곡창고를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변신시켰다.

신안군은 2020년 3월 총면적 682.73㎡ 규모의 양곡창고를 매입해 수리 완료 후 운영자 공개모집을 거쳐 최근 '1004섬 신안 남하부역'이라는 카페·레스토랑을 개장했다.

'1004섬 신안 남하부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공간의 카페·레스토랑으로 하몽 등을 이용한 피자, 파스타, 커피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메뉴를 선보인다.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1004섬', '1도 1뮤지엄', 'UN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등 청년이 찾고자 하는 공간 조성하는 등 먹거리 지역 활성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한 우리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지역 활성화와 관광 기반 개발을 통해 신안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유휴시설 정비 등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1월호

2023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도시

- 함께 읽는 책, 감동이 전해진다
- 삶을 깨워주는 온·오프라인 독서모임들
- '책 읽는 사람'이 있는 그림, 책, 영화의 잊지 못할 그 순간

맛과 함께 구례 여행
지리산 길 사할 향기 짙은 단풍
기획-문터 낮춘 공연장 우리 곁에 클래식
문화는 품은 건축물-이용노의 집
한국적 조형 일군 거장의 담담하고 모던한 집

에향 초대석

곡성 '정해박해' 다룬 장편 발표 소설가 **김탁환**
"단인 평등한 세상 꿈꾼 이들의 믿음 그려"

특별기획 - 신진남관평어지도 ⑥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②
강원도 원주를 관광도시로 만든 전원형 미술관 뮤지엄산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⑥

2023 목포 문화재 야행 "목포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자!"
에향이 만난 이 사람 '푸바오 할부지' 사육사, 강철원
생의 만년에 돌아와 절경과 풍류를 노래하다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⑩
1920년대 '잃어버린 세대' 영화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